

인바이오믹스 제천공장



꾸준한 투자 · 노력 통해 농업인과 함께 성장 할 것

후발주자로서의 불리한 여건 ‘주경야독 · 일당백 신념’ 통해 극복
‘페이지’ 등 30여품목 생산, 석회유황합제 등 친환경약제 상업생산 가능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병술년 한해도 어느
덧 세밑에 와 있다. 한 장의 끝자락 달
력만 남겨놓은 채 우리네 기억 저편으로 물러
나려 한다. 농업의 최대 이슈였던 한·미 FTA
협상은 그 끝을 감지하기 어려운 가운데 아직
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를 보는 세론은 찬
반양론이지만, 희생을 강요당하는 쪽은 언제나
약자인 농업분야다. 농업 최대국과의 한판 승
부를 앞두고는 우리부터 한목소리를 낼 수 있
어야 한다. 그래야 상생의 미래가 도래할 것이
다. 어려운 농업여건 속에서도 굳건히 농업 농
촌을 지키는 농업인의 땀방울에 행복함이 가득
묻어날지 바란다.

올해 들어 정밀화학제품인 농약의 선진 제조
과정 및 현장을 소개함으로써 농약 및 제조환경,
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

과 선입견을 해소코자 마련한 열 번째의 장(場).
충청, 강원, 경상도를 향한 교통의 요충지이며
청풍명월의 도시인 제천에 위치하고 있다. 농약
과 탄산칼슘을 동시에 생산하고 있는 인바이
믹스(주) 제천공장(공장장 朴永穆)을 찾았다.

35명 임직원, ‘일당백’ 신념으로 주경야독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끝은 창대하리라’ 라는 성경구
절이 있습니다. 농약업계 후발주자로서 고급화
된 최신설비라 자신할 수는 없지만 공장실정에
맞는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통하여 최고의 제
품을 생산, 농업인과 메이저 회사에 공급하고자
임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끝은 미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바이오믹
스(주) 농약사업부 창립구성원으로서 라인설비

부터 개조 공정까지 공장 시설 하나하나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는朴公장장의 일성이다. 그러면서朴公장장은 제천공장과 희노에락을 함께 해온 18여년의 지난 세월을 회상하기도 했다.

현재의 인바이옉믹스(주)는 1984년 탄산칼슘 제조공장으로 설립된 동광화학의 후신이며 1987년 판상 및 구상형 탄산칼슘의 특허출원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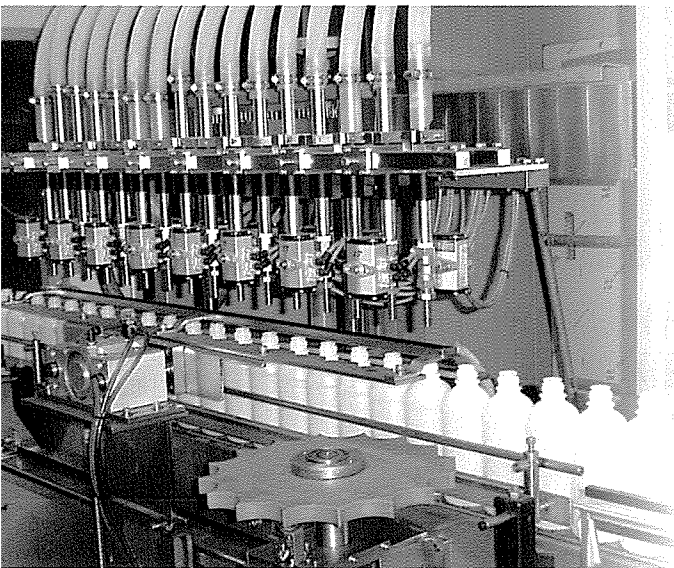
주요 시설로는 분·수화제, 유·액제, 비선택성제초제, 석회유황합제, 액상수화제 라인과 올해 초 신규투자한 입상수화제 라인이 갖추어져 있으며 올해 연말에는 흡착·도말식 입제시설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 후발주자로서 꾸준한 투자와 노력으로 농업인과 함께 성장 발전한다는 계획이다.

총 11개 라인에서 1일 8시간 기준 농약제품 90톤, 탄산칼슘 30톤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농약제품은 13,500톤(연간 생산일수 150일 기준), 탄산칼슘은 45,000톤(연간 300일 기준) 생산이 가능하다.

페이지·템플러 등 30여품목 생산, 민원 제로화 목표

차별화 전략을 묻는 질문에朴公장장은 “다품목 소량생산 체제 및 임가공 생산, 전 제형 생산, 작업시간의 유연성 등 차별화 요소가 적지 않다”면서 “가장 특징적인 품목은 과수용 약제인 석회유황합제와 결정석회유황합제로서 이 두 약제는 친환경재배를 위한 기본약제이지만 제조가 쉽지 않아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인바이옉믹스에서만 상업적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한다.朴公장장은 이어 “이 밖에도 신제품인 페이지입상수화제와 템플러입상수화제 등 30여품목을 생산중에 있으며 특히 입상수화제 라인은 금년 4월에 신설한 최신 설비로 모든 공정이 완전자동화 되어 있어 제품의 품질 및 규격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제조종사자를 위한 환경 및 안전시설에 대해朴公장장은 “제천공장은 무인운전 시스템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원들의 건강을 우선시 하고 있다”면서 “공해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화제 및 분제시설은 집진기의 블랙카본 집진설비로 되어 있고 유·액제 및 유황합제는 워터스크레마 공해방지시설이 3중



동시에 탄산칼슘 업체로서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러던 1991년에 석회유황합제 공장을 신설, 농약제조업계에 첫발을 내디뎠으며 1995년 들어 본격적으로 농약 공장 제조설비를 갖춘 후발주자이다. 2000년 3월에 인바이옉믹스(주)로 상호를 변경하고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기업 Family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1만3천여평의 대지에 농약사업부 및 탄산칼슘사업부, 기타 품질·생산관리, 물류·공무팀 등에서 총 35명의 고도로 숙련된 직원들이 일당백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최고는 아닐지라도 최선을 다하고자 주경야독하고 있다.

으로 설치, 쾌적하고 깨끗한 작업장을 운용함으로써 민원의 제로화를 목표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고 “또한 직원들의 아이디어 공모나 제안제도를 적극 활성화하여 실무에 반영하는 등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공장장은 끝으로 “농업인과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재 제천시와 대민봉사활동을

위한 자매결연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인근주변농가들과의 유대관계를 위하여 별도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농업인과 함께 생각하고 성장하는 회사로 발돋움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리고는 농약생산의 성수기임을 감안, 신속히 안전모를 착용하고 현장으로 발길을 재촉하는 박공장장에게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읽어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Y

미니 인터뷰

朴永穆 공장장

■ 여타 회사와는 규모나 생산품목, 생산방식이 다른 것으로 압니다만 상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규모면에서 여타 농약제조사보다 크지 않음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생산방식은 타사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인바이오피믹스는 자체품목의 생산판매 뿐만 아니라 여타 농약회사들의 임가공생산 물량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품목 소량생산을 위한 설비와 시스템을 온전히 갖추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며 생산시설 면에서는 입상·액상수화제의 경우에도 제초제 및 살균·살충제라인을 별도로 갖추고 있는 것이 큰 강점입니다. 시설운영면에서도 고객들의 수요에 맞게 작업시간을 조정해 나가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친환경농자재의 주 원료로 개발여지가 많은 칼슘에 대한 노하우가 깊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강점입니다.



■ 최근 업체마다 친환경 제품을 속속 출시해 내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후발 업체로서 어려운 점과 바라는 점이 있다면?

농약업계 뿐 아니라 모든 업종에서 후발주자 또는 소규모업체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신제품 개발 지 난’이라는 공통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농업의 미래와 회사의 발전을 위해 친환경제품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나 연구인력 및 시설 등에서 경쟁력 확보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농자재의 경우 그 영역이 광범위하고 품목당 판매가능 물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신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좋은 품질의 제품들이 선별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건전한 제조사들이나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 올해 주요 계획 및 실적은?

앞에서 이미 언급했습니다만, 올해 4월에 신설된 입상수화제 라인에서 현재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흡착·도말식 입제시설을 제작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차후에는 정제나 혼연제와 같은 특수제형들의 생산설비를 갖추어 종국에는 모든 종류의 작물보호제를 생산,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 인바이오피믹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